



스웨덴 기업혁신부, 대한민국 정부와 양해각서(MOU) 체결

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은 장관 및 경제사절단과 함께 6월 14-15일 스웨덴을 국빈 방문한다. 이번 국빈 일정 동안 스웨덴 기업혁신부 이브라힘 바일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.

첫 번째 양해각서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간 산업 협력에 대한 것으로, 양국간 △경험 교환 △정보 공유 △성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. 주목할 만한 사안은 스웨덴 내 '코리아 스타트업 센터(Korean Startup Center)의 설립으로, 급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스웨덴 양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 설립과 교류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또 다른 양해각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한다. 산업, 기술, 혁신 및 기업 간 협력에 대한 것으로, △기술 협력 △정책 개발, 성평등, 모빌리티(mobility)에 대한 경험 교류 △역량 교환 △민간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 촉진을 골자로 한다. 또한 양국 간의 대화를 용이하게 할 산업협력위원회의 설립도 포함한다.

이브라힘 바일란 기업혁신부 장관은 “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두 국가인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으며 신기술, 디지털화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대한 협력의 여지가 많다.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과 산업기술 협력의 두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이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

2019 년은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수교 60 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. 양국은 신기술, 혁신, 지속가능성 등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공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.

대한민국은 국가의 혁신 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수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다.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스웨덴의 세 번째로 큰 아시아 수출 시장이자 스웨덴 정부가 선정한 26 개 우선 시장 중 하나이다.

자료 및 인터뷰 문의:

사라 카타미(Sara Khatemi), 이브라힘 바일란 장관 대변인

+46 76-129 67 08

sara.khatemi@regeringskansliet.se